

韓日

JOURNAL

YOUR BEST SUCCESS BUSINESS PARTNER | 月刊한일저널

6

2011 Vol.27

COVER STORY

바다에서 꿈꾸는 미래, 여수에서 하나되는 인류

2012 여수세계박람회

매력적인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양주시

현삼식 양주시장

한일 상생의 새로운 경영시대로 가는 패러다임

한일경제협회 이종운 전무이사

17년 축적의 신뢰구축과 차별화된 데이터베이스

21세기 문화그룹 전순득 회장

ART & CULTURE

월트디즈니 특별展

LIFE UP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 문화예술창조의 도시



06

772005800404
ISSN 2005-8004



“

한일상생은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일의 새로운 경영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일경제협회가 있습니다.

”

한일 상생의 새로운 경영시대로 가는 패러다임

명실상부한 對日창구의 한일경제협회...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에 박차

KJE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한일경제회의 개최, 한일신산업무역, 한일양국 지역간의 협력강화, 한일 고교생 교류사업 등 한일간 경제협력증진의 최일선에 있는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는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 등을 이끌어 내며 한국과 일본 양국의 비즈니스 경제 등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아직까지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것이지 선진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일본과 같이 선진국이 되려면 일본의 기술력과 개발력을 앞으로 상당히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 발전구조, 시장정책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가져와서 정책당국이나 기업들에게 제보해 주는 명실상부한 대일창구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수 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월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한일경제협회와 자매기관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총괄업무를 이끌고 있는 이종윤 전무이사의 말이다. 이 전무이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히토츠바시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석박사다. 또, 현 한국 외국어대학교 세계교육대학원장으로도 재직중에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해박한 경제지식을 바탕으로 한국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오는 9월로 연가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재구축과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등 중요사안들을 처리하며 바쁜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한일국교정상화 20주년을 계기로 실시된 양국대학생 교류를 2004년부터 글로벌 리더양성을 위한 한일고교생교류캠프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일양국고교생간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

넘는 공동작업을 통해서 서로간의 차이 및 공통점을 이해하고, 미래의 국제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양국간의 큰 자산으로 만 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의 리더십, 한국경제발전의 구심점

오늘날 한국이 이만큼 세계에서 반도체 중심의 강한 경쟁력을 발휘하게 되기까지는 1997년 IMF금융위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IMF이전에는 기업들이 연공서열이 강했다. 그러나 이후에 대기업들은 성과주의를 지향함에 따라 성과를 많이 내는 근로자에게는 연봉이나 승진이 더해졌다. 더불어 스톡옵션을 적용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기업들로 거듭 났다. 이는 곧 한류기업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라고 이 전무는 말한다. 그는 이어 한국기업들은 IMF라는 강력한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은 과감히 버리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이익에 집중시키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들어 미국의 GE가 전자산업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다 같이 치우는 과정에서 30만명을 해고시켰다. 이는 실질적으로 GE의 회생계기 마련이 됐다. 한국의 기업들은 외부의 강력한 압력을 받은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또 그러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았던 일본 또한 고이즈미내각때 구조조정을 단행했었지만 아무래도 외부에서 강하게 밀어부치는 것과 자체적으로 밀어부치는 것 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 전무의 말이다. 비경제적인 노선은 전부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합리적인 경영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의 기업과 그대로 가져가는 일본기업의 구조가 한일간의 경영퍼포먼스에서 한국이 우위에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한일경제협회에서는 지역간의 협력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접한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성을 추구하다보면 한국과 일본이 잘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한방과 도야마의 의과대학이 한방중심으로 잘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연결시켰고, 규슈와 부산이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한일지역간의 유무상통할 수 있는 기업상호간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주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자체는 속도가 느리지만 한일경제협회가 하면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끌어들이는 1차 목적은 고용창출이기 때문에 많은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물론 대기업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에도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업당사자가 꼼꼼이 체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일상생은 그렇게 되어가야 됩니다.” 한일의 새로운 경영시대로 가져라는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전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와 있는 한국이 그러면 어디에서 이 부분을 확보해야 하는가에 대해 동아시아라고 결론을 내린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일은 상생을 해야만 되는 시점에서 있다. 중국은 금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자본주의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가의 강력한 지시를 받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마늘파동때도 여실히 그것을 보여주었고, 중일간의 영토 분쟁이 희토류수출을 금지시켰다. 정치와 경제가 연동되는 시장경제는 신뢰가 약하다. 그런면에서 독도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경제에는 영향이 없지 않은가? 이것은 시장경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일의 협력여지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한일은 동아시아 인프라 구축 등 협력해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한국과 일본은 시장경제를 토대로한 신뢰 가능한 경제환경구축이 구미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는 9월 29일 한일 경제회의가 열린다. 한일은 동아시아 인프라구축에 같이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환경분야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본은 이미 앞서있고 한국도 많이 접근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한일상생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물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일본은 품의

第12回 韓日新産業貿易會議

2011. 2. 25(金) ASEM HALL 203號 · 韓國貿易協會 · 韓日經濟協會 · 日韓經濟協會



제로 밑에서부터 전원합의체를 이루어 진행되는 반면, 한국은 상위하달식이다.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경영방식을 저평가했다. 독단적인 경영이 낡은 무리수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전 종업원의 합의적인 경영의 일본은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므로 말미암아,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오랜 불황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지금은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경영시스템 자체가 일본은 정체현상을 양상시키고 있을 때, 한국은 빠른선택과 강하게 밀어부치는 승부수를 띄워 성공을 이끌고 내고 있다.

한국의 똑 같은 경영방식이 IMF이전에는 좋지못한 평을 받은 반면, 이후에는 높이 평가되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 전무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영실태가 표면적으로는 실패인 것으로 보일 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엔고 등으로 경제혼란기를 겪고는 있으나, 이는 튼튼한 기반의 일본 경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 중요한 시기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잘하지 못함으로 인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탄탄한 기술력과 대일무역 역조가 줄지를 못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기술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협화와 재단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의 앞선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와 경영력을 활용하는 것이나 이다. 특히 여전히 앞서있는 일본의 첨단기술력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다. 다만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처럼, 평가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잘 갖춰진 기업이 성장발전을 한다.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선진국이 되려면 일본의 기술력과 개발력을 앞으로 상당부분 가져와야 된다. 먼저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한일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발전구조, 시장정책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책당국과 기업들에게 제보해 주는 역할에 협회를 비롯한 재단이 명실공히 대일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이 전무는 밝혔다.

이은희 기자 lehi@paran.com

이종윤 전무이사 프로필

- 1984~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1994~1996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조정처장
- 1996~1998 한일경상학회장
- 1998~1999 한국국제통상학회장
- 1999~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장
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부문계획위원
전 산업자원부 무역정책 자문위원
전 교육부 교육개혁 추진홍보위원
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센터 자문위원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10년 3월~ (주)KT 경제고문(상근)
- 2011년 1월~ (사)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겸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사)한일경제협회

설립배경 | 1981년 한일간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경제 4단체장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과 포항종합제철(주)대표가 양국간 민간경제협력, 무역증진, 산업협력 등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기로 합의

설립목적 | 한일양국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며, 특히 한일간 민간경제협력, 무역증진, 산업협력의 제후를 도모함으로써 상호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

주요사업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한일양국간에 개최되는 가장 대표적인 회의로, 양국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강화하고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 등 경제교류촉진에 관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으로서 민간업계의 의견이 양국 정부, 유관기관에 전달되는 창구역할 수행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 한일공동의 과제에 대한 정보와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 경제현상에 대한 인식공유와 함께 애로사항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업계 등에 제안, 요망하는 기능

한일양국 지역간 협력강화 : 九州(규슈) 및 北陸(호쿠리쿠)지역과의 무역, 투자,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또한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해 한일중 3국의 환황해 지역간 협력을 통해 무역, 투자,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환황해 경제권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를 구축

한일고교생교류사업

실시배경 | 한일국교정상화 20주년을 계기로 실시한 양국 대학생 교류를 2004년부터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한일 고교생교류 캠프로 전환해 실시

하고 있다. 이로인해 한일 양국 고교생간에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공동작업을 통해 서로간의 차이 및 공통점을 이해하고, 미래의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형성이 양국의 미래에 큰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시내용 | 방학을 이용해 4박 5일동안 합숙하면서 양국의 관광, 문화, 교육 등에 대한 비즈니스를 한일혼성의 팀별로 기획하고 발표하는 경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회의 개최로 1482명이 참가했다.

기대효과 | 선대 경제인들의 뒤를 이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의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한일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필요해짐에 따라, 한일경제협회는 일본 대지진 이후 이웃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반영해, 한일 양국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양국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한일청소소년간의 교류를 통해 우정을 쌓아감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2009년 1월, 한일정상회담에 방문한 일본 아소 총리가 청소년과의 대화를 기획하면서 한일고교생교류캠프에 참여한 한일학생 25명을 초대해 대담을 나누기도 했다.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KJCF)

설립배경 | 한일 양국정상간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합의(양국에 각각의 재단설립)

설립목적 |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촉진과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정립에 기여

사업개요

재단은 1992년 창립된 이래 기술연수, 기술지도, 비즈니스상담회, 교류미션, 산업기술연구, 정보제공 등 양국간 산업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대형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대행사업이 재단사업의 40%를 차지했으나 자체 역량강화 및 발전적 사업발굴을 통해 현재 95%이상 직접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의 수요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해 2008년부터 추진중인 일본우수기술자 초청 기술지도는 내외부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재단이 차후 추진해야 될 중점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술연수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한 제조기술 연수가 주류를 이룬 반면, 현재는 일본의 경영 및 생산시스템 습득을 위한 '모노즈쿠리 연수' (일본 동경대 모노즈쿠리 경영연구센터와 협력)를 비롯,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인 녹색환경 산업분야연수 등 시대조류에 맞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연수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한일간 산업협력사업을 홍보하고 사업의 집대성 추진을 위해 2008년부터 한일산업기술페어를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상담회, 이슈세미나, 한일산업유공자 발굴, 기술지도 상담회 등 양국간 협력사업의 집합체로써 산업기술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경제통상, 산업자원, 비즈니스 등의 지식정보 DB를 구

축,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정부와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대일무역역조, FTA협상 등 한일양국간 현안분석 및 매월 일본전문가로 구성된 재팬포럼을 개최해 양국간 산업협력 정책결정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사업성과

일본 우수기술자를 초청해 국내중소기업의 부품소재분야의 기술지도를 통해 기술력과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대일무역역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 기술자를 일본기업 및 산업현장에 파견해 일본의 생산관리 및 경영관리 등을 보고 익히게 하므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로인해 불량률의 감소와 원가절감이 이뤄짐에 따라 48.8%의 생산성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70.8%의 높은 매출신장을 끌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통상, 산업정책을 주간단위로 통합분석해 대일협력 이슈를 개발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규슈, 호쿠리쿠 지역과의 무역, 투자 및 산업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간의 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규슈와 한국지자체간의 MOU체결을 통해 245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호쿠리쿠와는 192개 협력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